

표준명

정격 전압 6/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

표준번호

KS C 3899



개발기관명/분야

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/전기전자

TC/SC

-



성격: 제품표준

종류: 고유 제정

개발시작일: 2020. 07. 21

최종고시일: 2021. 06. 22



01 표준개발 배경

- 2014년 KS C 3341 표준의 개정에 따라, 관련 내용이 KS C IEC 60502-2 표준이 편입 되었으나, IEC 60502-2 표준에는 저독성 재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, 국내 부합화(IDT) 정책에도 맞지 않았다.
- 또한, 2019년 표준회의에서 IEC 60502-2 표준의 국내 부합화(IDT)를 권고 및 주로 지하철 선로에 사용되는 제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, 6/10 kV 저독성 케이블의 내용을 포함한 고유 표준 제정을 추진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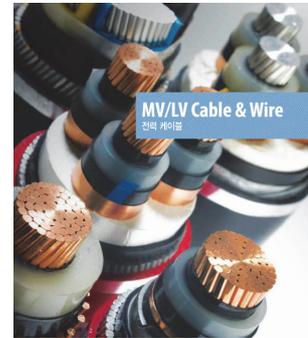
02 정책적 부합성

관련 정책 KEYWORD : -

- 최근 국제표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국제표준(IEC)과의 일치화를 통해 산업 기술의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한국산업표준(KS)과 국제표준(IEC)의 부합화(IDT)를 원칙으로 2019년 표준회의에서 KS C IEC 60502-2 표준에서 6/10 kV 저독성 케이블(ST8)의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 고유 표준 제정을 추진하였다.

03
표준 범위
및 내용

- 6/10 kV 이하의 전력용 회로에 사용하는 전력 케이블로서, 도체 위에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,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으로 시스한 전력케이블의 구조, 치수 및 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

04
성과의 우수성

- 산업 및 수송분야 전선 표준 제정을 통한 안전한 제품 생산에 기여 할 수 있다.

05
기대효과

관련산업 : 전선 제조업체

표준활용 : 국내 지하철 선로 및 154kV 이상 고압 전기설비 내, 구내배전설비에 사용되는 전선 및 전선 제조업체 약 20여곳(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기준) 활용 가능

- 국제적으로 6/10kV급 전력시장에 창출 및 전선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.
- 표준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, 지하철 및 대형 다중이용시설, 공장 등의 정전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